



02월 07일 005면

청소년에 UCC 관련 선거법 홍보

대구시선관위(위원장 황영목)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UCC 등 사이버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'선거 UCC(사용자 제작 콘텐츠)물에 관한 운용기준'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초·중·고교생 및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젊은 네티즌이 선거법을 잘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구시교육청에 UCC 운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.

또 대학교나 유관 기관, 단체 등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해 이들 홈페이지에 팝업·배너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.

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UCC를 홈페이지, 개인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.

최곤기자 kons@yeongnam.com